

# “민주당 연설은 대정부 투쟁 선언”

### 국힘 “비난만 가득” 교섭단체 연설 비판...정의 “선거제 개편 의지 부족”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은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관련해 “현 정부에 대한 책임을 돌리는 내로남불이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 원내대표의 연설 뒤 기자들과 만나 “현 상황에 대한 진단, 진단에 대한 시각이 국민 눈높이와 맞는지”라고 반문한 뒤 “또 이 상황을 윤석열 정부에 전부 책임을 돌리는 말씀이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가 실종되고, 국회가 마비되는 그 원인 제공에 대한 말씀은 없어서 좀 아쉬웠다”고 덧붙였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이하는 제1야당 원내대표의 일성이 어떻게 자신의 SNS에나 올릴 법한 원색적인 정부

비난으로 가득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교섭단체 연설이 아닌 대정부 투쟁 선언이었다고, 국무총리 해임결의안 제안설명이나 다름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체포특권 포기”를 국민 앞에 약속해놓고서는, 법질차대로 진행되는 검찰을 되레 비난하며 ‘가결은 분열의 길’이라며 당론이 아님을 자백하는 모습은 낮부끄럽기만 하다”고 비난했다. 또 “대선 공작의 실체가 드러나고, 자신들의 무능을 덮으려던 통계 조작까지 온 세상에 밝혀졌을에도, ‘최악의 민주주의’를 운운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적반하장에 기가 찬다”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기껏 한다는 말이 비리 덩어리 태양 광에 대한 집착이고, 경제를 망칠 노란봉투법 강행이며, 또다시 ‘가짜평화론’이라고도 비판했

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의 DNA, ‘내로남불’을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남 탓도 정도껏 해야 한다”고 꼬아붙였다. 한편, 정의당은 박 원내대표의 연설에서 선거제도 개편 의지가 부족하다고 날을 세웠다.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폭주와 실정은 적대적 공생의 양당 독점정치가 빛은 참극”이라며 “정부의 폭주를 견제하면서도 타협의 정치를 복원할 확실한 길은 선거제도 개혁뿐”이라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오늘도 위성정당 원천 금지·지역주의 타파·비례성 강화 등 수많은 외쳐온 대원칙만을 반복했다. 비례성과 대표성 개선의 핵심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화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며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이재명 입원, 검찰 수사 거부 명분 안돼”

### 국힘 “김기현 대표 병문안 검토...쾌유 기원”

국민의힘은 18일 단식 중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기원하면서도 단식 상황이 검찰의 정당한 수사 요구를 거부하는 명분이 되지 않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가 결국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 대표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18일간 진행된 이 대표의 단식은 많은 피해를 가져왔다”며 “국회 내에서 벌어진 두 차례의 자해 소동 등 극단적 갈등을 야기시켰고, 정기국회를 민생이 아닌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주 진행된 대정부 질문, 앞으로 있을 국정감사 모두 정부를 냉철하게 견제하고 또 건전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야당의 무대”라며 “이 대표가 그런 제1야당의 대표 자리로 돌아와, 국민의 힘 김기현 대표가 제안한 여야 대표 회담을 비롯해 민생을 챙기는 데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만 유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이날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서 기

자들에게 ‘단식이 검찰 수사 거부 명분이 되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긴급 이송과 구속영장 청구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 대표가 단식을 검찰이 필요한 시기의 수사에 대해 모든 요구를 거절하는 명분으로 사용했기에, 정당한 검찰의 수사 요구에 대한 거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 없다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하는 것인데 (단식을) 지속해 정당한 소환과 재판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는 명분으로 쓴다면 그 자체도 하나의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대표가 이 대표 병문안을 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까지 결심이 있던 않았으나 정치 복원 측면에서 검토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가 단식장을 방문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 “정치 상대 당수가 단식을 왜 하는지 명분이 있어야 여당 대표도 그에 맞춰 단식장 방문이나 대화할 수 있는데, 대화할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방문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78차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미국 뉴욕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尹 정부 국정 지지율 35.5%

### 전주보다 1.2%p 하락...개각 발표 따른 영향 분석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한 주 만에 소폭 내렸다. 여론조사 결과 1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5일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2%포인트(p) 내린 35.5%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8월 둘째 주부터 30% 중후반대에서 소폭 등락(38.3%→35.6%→37.6%→35.4%→36.7%→35.5%)을 반복하고 있다. 부정 평가는 1.9%p 오른 61.8%로 조사됐다. 이번 주 여론조사에는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 교체 발표와 장관 후보자들의 과거 발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권역별로 보면 광주·전라(7.3%p ↑)에서 지지

율이 올랐다. 부산·울산·경남(4.3%p ↓), 인천·경기(3.4%p ↓), 대전·세종·충청(1.8%p ↓), 서울(1.6%p ↓) 등은 내렸다. 연령대별 지지율은 70대 이상(5.4%p ↑), 20대(3.9%p ↑)에서 올랐고, 30대(9.3%p ↓), 60대(2.6%p ↓), 50대(2.1%p ↓), 40대(2.1%p ↓) 등은 내렸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1.3%p ↑)과 진보층(1.4%p ↑) 지지율이 오른 반면, 중도층(3.2%p ↓) 지지율은 내렸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무선(97%)·유선(3%)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3%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 尹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출국

### 4박 6일 일정...내일 기조연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공항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4박6일 간의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욱 원내대표, 김대기 비서실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등이 환송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회색 넥타이를 맺으며 김 여사는 회색 치마 정장 차림이었다. 김 여사는 부산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홍보 열쇠고리가 달린 손가방도 들었다. 윤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지

난해 9월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선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교류에 대한 경고와 함께 국제 사회의 연대를 호소하는 메시지가 연설에 담길 전망이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윤 대통령은 뉴욕 도착 직후부터 릴레이 양자 정상회담을 시작, 출국 직전까지 총 30여개 국가 정상과 만나 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이낙연 목표·장성서 강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목표와 장성에서 강연 행보에 나선다. 18일 국립목포대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오는 20일 오후 4시 목포대 청강아카데미홀에서 ‘대한민국 생존전략’을 주제로 특별 강연한다. 이 전 대표는 마중 경쟁 격화 등 최근 국제정세에 발맞춰 대한민국이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 외교 정책 등을 설명한다. 강연에는 지역 주민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질의응답과 사인회도 마련된다. 이 전 대표는 오는 21일 오후 4시에는 장성문화예술회관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를 주제로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강단에 선다. 이 전 대표를 강사로 초청한 21세기 장성 아카데미는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이다’를 기치로 1995년 9월 15일 첫 강좌를 열어 1천170회를 맞는다. 이 전 대표는 최근 1년간 미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지난 6월 24일 귀국, 전북 전주 등지에서 공개 강연을 이어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땅끝농협 농기계서비스센터 임대 안내

전남 해남군 송지면에 위치한 땅끝농협 농기계서비스센터를 아래와 같이 임대하고자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연락바랍니다.

<b>임대시설 개요</b>	· 주소 : 전남 해남군 송지면 달마로 19(미야리 219-10) · 면적 : 건물(369㎡), 대지(2,584㎡) · 임대시설물 : 목축물 내 건물 및 기계·공구·비품 일체
<b>임대조건</b>	· 임대기간 및 임대료 : 상호 협의
<b>신청자격 및 방법</b>	· 신청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상 농기계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신용정보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농기계수리 서비스업 경영자 우대 · 제출서류 : 신분증, 자격증사본, 주민등록등(초)본 · 신청방법 : 땅끝농협 총무계로 직접 방문 신청
<b>문의사항</b>	· 땅끝농협 총무계로 문의 (전남 해남군 송지면 산정1길 80, ☎ 061-533-2470)

**땅끝농업협동조합**

##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 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권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김인중(420719-XXXXXX)  
· 최후주소 : 광양시 전월면 장재길 77  
· 등록기준지 : 전남 광양시 전월면 장재길 45  
피상속인 망 김인중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3노단394호로 신청하여 2023년 9월 14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 등을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9월 19일  
· 상속인 : 강태현(770813-XXXXXX)  
남양주시 화도읍 수레로1120번길 33, 104동 404호(영남빌스빌아파트)  
· 신고기간 : 2023. 9. 19. ~ 2023. 11. 29.  
· 채권신고장소 : 상속인 강태현의 주소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정복실(370505-XXXXXX)  
· 최후주소 : 광주 북구 동림동산로 12, 402동 704호 (동림동, 푸른마을주공단지아파트)  
피상속인 망 정복실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3노단716호로 신청하여 2023년 9월 12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 등을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9월 19일  
· 상속인 : 김경식(670514-XXXXXX)  
광주 북구 삼정로 71, 107동 407호 (두암동, 부영맨션)  
· 신고기간 : 2023. 9. 19. ~ 2023. 11. 29.  
· 채권신고장소 : 상속인 김경식의 주소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